

문학과 사상이 살아 움직이고 소통되는 현장

- 해방 이전까지 고보 및 전문대학 교지 -

오 문 석 | 연세대 강사

1. 머리말

근대적 교육제도가 정착되면서부터 학교 교지(校誌)의 역사도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 초기의 모습을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서 설립된 배제학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교 10년이 지난 후 배제학당에서는 최초의 학생회라고 할 수 있는 ‘협성회’가 조직되었는데(1896. 11. 30), 그후 학생회는 기관지 『협성회회보』를 주간지의 형태로 발간하게 된다(1898. 1. 1). 최초의 교지라고 해야 할 이 『협성회회보』는 발간 5개월만에 제 14호까지 내고 폐간되었는데, 무능한 수구파 정부관료에 대한 학생회의 신랄한 비판이 그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폐간 이후 회보는 오히려 『매일신문』(최초의 일간신문)으로 거듭남으로써 학교의 담을 넘어서게 된다.

한 학교의 교내 간행물이 전국적인 매체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당시로서는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간행물의 수요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신문이나 잡지가 귀하던 시절, 학교의 교지는 신문과 잡지의 기능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학교 교지는 발행처만 특정한 학교일 뿐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신문이고 잡지의 일종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일제시대 동안 경성에서 발간된 전문대학 교지의 대부분은 비매품이 아니었다. 1920년대 후반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학생회에서 발간한 『신흥』과 이화여전의 『이화』는 40전에 판매되었으며, 연희전문의 『연희』는 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교지의 영향범위가 학교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것은 학교 자체가 단순한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의 사립학교는 1910년 한일합방 이전까지 대부분 그 기초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사립학교 건립이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일환이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사립학교 건립을 위한 예비모



名班標語

임으로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조직된 각종 학회에서는 나름의 학회지를 발간하였는데, 이러한 학회지의 성격이 이후 학교 교지의 모델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학사에서 그 무렵 발간된 여러 종류의 학회지는 근대문학이 형성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문학이 성립된 이후에 발간되는 각학교의 교지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문단이 성립된 이후에 학교 교지에 실린 아마추어적 작품이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일본 유학생 학회지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국내 학회 학회지의 경우처럼 유학생 학회지가 문학사의 조명을 받는 것은 대개 국내 문단 형성 이전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지 및 학회지에 대한 관심의 쇠퇴는 공식적인 문단을 중심으로 문학사를 서술하는 태도와 맞물려 있다. 우리가 교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정식으로 문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의 뒷모습인지도 모른다.

2. 고보의 교지

한일합방 이후 사립학교에 대한 총독부의 탄압이 계속되는데, 특히 1915년의 사립학교령은 학교의 명칭을 중등교육기관은 고등보통학교로,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으로 변경하고 그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계기가 된다. 이로써 명칭을 변경한 학교의 경우 < 고보(高普)>, < 전문(專門)>이라는 교명(여학교의 경우는 < 여고보>, < 여전>)을 얻게 된다.

학교의 명칭이 바뀌는 만큼 각 사립 학교의 교지 명칭 또한 수 차례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학생회 조직의 정비와 때를 같이 한다. 예컨대 이미 언급한 배재고보의 경우 1903년에 조직된 배재학생 기독교청년회가 그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교지의 명칭을 변경해왔는데, 1918년에는 『배재학보』로, 1922년에는 『배재』로 변경한 것이 그 사례이다. 물론 『이화』, 『오산』, 『휘문』 등 교지명이 학교명을 따르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학생회의 조직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교지 발간 부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학생회 산하 <문학부>에서 담당하여 교지의 문예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배재고보의 경우 『배재』를 발간할 무렵 “될 수 있는 대로 전사회 및 타학교 생도에게까지 문학적 사상의 보급을 계(計)하며 하고 하여 교지의 의미를 문학의 보급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지에 마련된 문예면은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하기 이전 예비 등단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교지는 학생들의 대사회적 발언의 장으로도 활용되어 종종 검열에 따른 삭제 및 압수 사건



普中親睦會報 제 1호

이 발생하기도 한다. 역설적이게도 학생들의 사상적 동향을 파악할 때 교지가 정보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고보의 경우 교지의 창간 시기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달랐는데, 예를 들어 보성고보가 1910년에 이미 『보충친목회보』를 발간하고 있었는데 반해, 배화여고보는 1929년에 가서야 교지 『배화』를 창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192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학교명에 따르는 교지를 발간하게 된다. 대개 1년에 한 번 발행되던 교지도 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한글 사용을 금지하게 됨에 따라 폐간하거나, 순일문으로 된 교지를 발간하기에 이른다(『배화』12호, 1940).

3. 전문학교의 경우

1) 숭실대학의 교지

당시 전문학교는 3년 학제로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1920년대 초반 민립대학을 세우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좌절되고, 1924년 관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이 건립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평양의 숭실대학은 미리부터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일찍부터 학생회 활동이 활발하였다. 1915년 당시까지 대학생수가 71명이었던 숭실대학은 중등학교와 연계하여 『숭실학보』를 창간하게 된다(1915. 9). 교장 배위량과 편집인 김인준이 주관한 『숭실학보』에는 학생 뿐 아니라 교수, 지방유지들이 글을 투고하는 등 지방잡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창간호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하였고, 2호부터는 평양에서 인쇄하였으며, 20전에 판매되었다. 학보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2호부터인데, 학생들의 문예작품 6편을 비롯 교수와 학생의 논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교지 외에도 숭실에서는 등사판 『숭실문학보』(1916년 창간)가 있었는데, 1914년부터 결성되었던 숭실대학 <문학부(문학동호회)>의 동인지인 셈이다. 월 2회의 강연과 시회(詩會)를 개최하던 <문학부>가 『숭실학보』 2호부터 편집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숭실대학에는 학생회가 없었으나 1921년 숭실대학 학생기독청년회가 창립되면서, 1924년 교지를 『숭실』로 개명하고 학생회 산하 <지육부(智育部)>가 편집을 맡게 된다. “본지는 매 학기 1차식 년 3회 발간하는 중 2차는 간단히 시보로 하고 제 2학기만 잡지로 발간하는 바”(5호, 1927)라고 하여 특이하게도 시보와 잡지를 별도로 발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숭실』은 그 4호(1926.11)가 원고를 전부 압수당하는 수모를 겪어 그 논조를 짐작케 한다. 그 내용은 5호의 경우 논문 7편, 기행 6편, 시 12편, 창작 2편에 소식란과 편집후기로 구성되어 있고,



연화타임스

총 100쪽 분량으로 되어 있다.

1928년 양주동의 부임은 송실의 문예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계기가 된다. 부임 이후 양주동은 『문예공론』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송실 학생들의 시를 교지를 비롯 신문, 잡지에 추천해 주기도 하였다. 실제로 『송실』 6호부터는 학생들의 시(23편)와 창작(4편)이 부쩍 늘었으며 교지의 면수도 145쪽으로 늘어났다. 시일이 지나면서 교수들의 논단이 줄어드는 대신 학생들의 문예란이 확장되어 1930년 창간 기념호(10호)에는 교수들의 논단(5편)을 제외하면 시(26편)와 창작(4편) 등 학생들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다. 편집후기에는 “재학생들의 원고만으로 문예호를 내보려고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결국 실현해보지 못 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어 주목된다. 결국에는 1930년 교지와는 별도로 『송전교우(崇專交友)』를 창간하는 열의를 보이고 만다. 교지 또한 11호(1931.2), 12호(1931.12)를 거치면서 점차 학생들의 시와 소설로 채워졌고, 그 선별과 지도는 양주동의 손을 거쳤다.

이 시기(1932년)에 김현승이 송실전문 문과로 진학하게 된다. 그는 이미 1학년 겨울에 장시를 교지에 투고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송실』15호(1934)에 실린 시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은]이라는 작품을 양주동이 『동아일보』에 추천하여 등단하게 된다. 김현승 이외에도 16호(1935)에는 1929년 광주학생 만세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김조규의 시 [마음의 칠현금]이 수록되어 있다. 시인 김조규는 우리에게 월북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16호에는 김현승 작사 김동진 작곡의 [송실의 노래]가 악보와 함께 게재되어 있다. 그 해(1936) 이효석이 부임해왔으나 중일전쟁(1937) 이후 노골적인 탄압이 가중되면서 학교는 1938년 문을 닫게 된다.

2) 연희전문의 교지

1915년 전문학교로 설립된 연희에서는 그해 10월 <연희학생청년회>가 조직되어, 그 산하 <지육부>에서 『연희』 발간을 책임지게 되었다. 하지만 “1919년경에 창간호를 발행하려고 편집까지 마치고 제반 준비가 완성되었던 것이나, 주위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포로 돌아가고 ”(『연희』창간호,1922.5) 말았다. 주위 사정이란 3·1 운동을 말하는 것으로 수년의 산고 끝에 창간된 교지에 대한 기쁨은 [창간사]에 잘 나타나 있다. 창간호는 여느 교지처럼 창간사 외에 논문(9편), 수필(1편), 소설(1편), 시(6편), 기록(4편) 등으로 구성되어 총 92쪽 분량으로 출간되었다. 교수와 학생에 의해서 꾸며졌으며, 처음에는 춘추호로 한 해에 두 번 내려 했으나 대체로 1년에 한 권씩 나왔다. 그러나 『연희』는 그 출발부터 순탄치가 않았다. 2호는 발행을 금지당하였으며, 겨우 11월에야 임시호를 낼 수 있었는데, 이때도 김윤경의 [먼저 사람이 됩시다]라는 논문과 강성주의 [신생의 여명기를 임하여]라는 감상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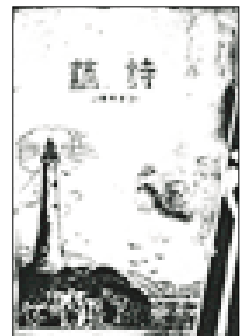
연희

『연희』지와 『문우』지를 통해서 활동한 작가로는 박영준을 꼽을 수 있다. 그는 1930년에 입학하여 『연희』 7호에 [近城]이라는 시를, 『문우』에도 시 「이기주의자, 야심을 버리어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는 1934년 정월, 졸업을 석달 앞두고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던 「모범경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소설가이다.

압수당했다. 이에 대해 [연희 임시호 발간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위당 정인보는 “특별한 사상이 있는 것도 아니요, 과격한 언론이 있는 것도 아니건만, 검열관의 눈에는 어떻게 놀라워 보이었던지 (2호, 임시호)라며 한탄하고 있다. 2호부터는 분량을 두 배 정도로 늘이면서 논문과 문예가 절반씩 차지하게 배려하였으며, 특별한 변화 없이 3호(1924.5)부터 4호(임시호, 1925.3), 5호(1925.10), 6호(1926.5)를 거쳐서, 상당 기간 휴간되었다가 7호(1931.7)에서 속간되어 8호(1932.12)로 종간되었다.

『연희』지의 종간 이후 1930년 문과에서 조직된 <문우회>가 그 기관지 『문우』(1932년 창간)로 뒤를 잇게 된다. 편집인 한태수의 「권두언」에는 “대중이 요구하는 문예활동이란 그들의 생활상태와 그들의 의식을 여지없이 그려내고 그들의 운동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습작을 벗어나 본격적인 문예잡지로 진출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우』 또한 이시우의 시와 김대균의 희곡이 삭제당하는 등 검열에 시달렸는데, 이에 대해 편집후기에는 “우리의 문단은 바야흐로 파쇼의 침략하에 그 자취를 감추려는 위기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당시의 KAPF의 검거 사건을 둘러싼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문우』는 부정기적으로 간행되다가 1941년 5호를 마지막으로 종간된다. 다른 잡지와 마찬가지로 5호는 대부분 일본어로 씌여졌다. 그 외에도 연희전문에서는 1930년 한국기독교청년회에서 『시온』을, 경제연구회에서 『경제연구』를 발간하였지만 단명했다. 1935년 『연세춘추』의 전신인 『연희Times』가 간행되어 대학신문의 효시로 기억된다.

『연희』지와 『문우』지를 통해서 활동한 작가로는 박영준을 꼽을 수 있다. 그는 1930년에 입학하여 『연희』 7호에 [近城]이라는 시를, 『문우』에도 시 「이기주의자, 야심을 버리어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는 1934년 정월, 졸업을 석달 앞두고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던 「모범경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소설가이다. 같은 해에 그는 『신동아』 신춘문예에도 장편 『일년』, 콩트 「새우젓」이 동시에



연희전문시대의 학생간행물

당선되는 영예를 얻어 작가로서의 재질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그의 초기 작품은 대개 농민소설 계열로서 농민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다. 그는 연희가 배출한 최초의 작가인 셈이다.

『문우』지에서 우리는 시인 윤동주의 시 「우물 속의 자화상」과 「새로운 길」을 보게 된다. 『문우』에 실린 대부분의 원고가 일본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를 비롯한 몇 편의 시가 한글로 발표되었다. 윤동주는 1938년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하여 1941년 12월 졸업하기까지 연희 기숙사에서 시세계를 키웠으며, 졸업 후 한정 출간하려 했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생전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해방 이후에야 출간되었다.

그 외에 연희를 거친 시인, 소설가들 중에는 별도로 동인지를 내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신백수를 중심으로 이시우, 장서언, 최영해 등이 참여하여 시험삼아 발행한 『삼사문학』(1934)이라는 동인지는 초현실주의 경향의 잡지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이시우가 3집에 발표한 「절연하는 논리」라는 글은 초현실주의 선언문에 가까운 글로 평가된다. 신백수 등은 이후 『창작』(1935), 『탐구』(1936) 등의 동인지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연희전문을 중퇴한 김이석이 고향 평양으로 가서 『단층』(1939)이라는 동인지를 발간하여 모더니즘 경향의 소설을 선보였는데, 이로써 동인들은 <단층파>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마지막으로 『연희』3호(1924)에 희곡으로 얼굴을 내민 박용철 또한 연희전문을 중퇴하고 『시문학』(1930)을 창간할 무렵 그 동인으로 징인보와 변영로를 추대하고 있는데, 이는 연전 재학시절의 인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경성제국대학의 『新興』

경성제국대학은 조선의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제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1924년에 설립된 대학이다. 교수와 학생 대부분이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선인의 입학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었다. 학제는 예과와 학부(요즘말로 본과)로 이루어져 있고, 예과는 다시 문과와 이과(의대)로, 문과는 다시 문과A(법학)와 문과B(문학, 사학, 철학)로 나뉘었다. 1925년 초기부터 학생회가 있어서 『청량(淸涼)』이라는 순 일본어로 된 교지가 발간되었지만, 조선인 학생은 따로 <문우회>를 만들어 1년에 한 번 『문우』지를 간행하였다. 1927년 조선인 학생의 모임을 자제하라는 권유에 따라 5호로 『문우』지가 종간되고, 조선 학생들은 별도로 <경제연구회>, <적송회>, <낙산문학회> 등으로 흩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1929년 법문학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신흥(新興)』(1929.7)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게 된다.

사실상 『신흥』은 법문학부 1회 졸업생들의 졸업작품이다. 이처럼 『신흥』은 전체



신흥 제 8호

학생회의 교지도 아닐 뿐 아니라, 이과생을 포섭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선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지만, 문과생 전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성제대 조선학생 교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흥』은 대부분의 다른 교지가 교수와 학생의 공동 작품집이라는 점에 비교한다면, 학생들만의 단독 잡지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축사」도 「발간사」도 생략된 채 바로 논문으로 시작하는 『신흥』 창간호의 모습은 어떤 단호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 느낌은 창간호 편집후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조선의 모든 정세는, 드디어 『신흥』을 탄생시키었다. 과거의, 우리의 모든 운동에 있어서 누구나 통절히 느끼던 것은, 우리에게 확호한 이론·과학적 근거로부터 우러나오는, 운동의 지표의 결함이었다. 신흥은, 모든 곤란을 극복해가며, 조선의 운동의, 이러한 방면에 기여함이 있으려 한다.”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흥』의 창간 목적은 조선의 모든 운동에 대하여 “확호한 이론·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 곧 최초의 현실성 있는 학생학술논문집의 탄생이다. 신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논문>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창간호(1929)에서 9호(1937)까지 『신흥』에 실린 논문의 수는 총 94편(번역 13편 포함)으로 문학작품 29편(번역 6편)을 세 배나 넘어서는데, 해외의 정치·경제·문예상황을 소개하는 글 18편을 포함하면 총 112편에 달한다. 소개의 글을 제외하고 논문은 크게 사회과학계열(40편)과 국학계열(33편)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가 양대 근본 사상을 형성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사회과학계열의 논문에서는 철학(23편)이, 국학계열의 논문에서는 고전문학(11편)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학(6편), 경제학(6편), 정치학(5편), 한국사(9편), 국어학(5편), 민속학(7편), 기타 중국문학, 영문학에 해당되는 논문들이 있다. 철학은 거의 대부분이 독일철학(칸트, 헤겔, 마르크스, 딜타이, 후설)이고, 『신흥』7호·8호의 뒷표지는 독일어로 논문의 목차까지 표기하고 있어서(물론 문학은 제외), 일본과 독일 파시즘 사이의 학문적 연대를 상기하게 한다. 구성원들은 비교적 최근 시기의 잡지까지 구입해서 읽고 번역하고 평가하는 일에 익숙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헤겔철학과 신칸트학파의 교묘한 정철은 파시즘과 반파시즘 양측 논리의 이론적 근거로 모두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검증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국학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그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신흥』의 발행인은 배상하, 이강국, 유진오(7호)로 이어지며, 7호의 독일어 목차 제공은 편집후기를 쓴 신남철의 작품이 아닌가 싶다. 특히 7회의 발행인 유진오가 두드러진다. 우리에게 「김강사와 T교수」(1935)로 잘 알려져 있는 유진오는 <경제연구회>를 주도하기도 했는데, 그 연구회 구성원 중에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벗을 보내는 노래

에 참가한 사람까지 발생하자 해산을 종용받기도 했다. 그는 같은 경성제대 이효석과 더불어 KAPF에 동조하는 동반자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흥』에 거의 매호 발표된 그의 논문은 대개 마르크시즘 철학과 관련되어서 그의 이념을 짐작케 한다. 유진오와 더불어 <경제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신남철은 <헤겔 100주기 기념 강연>에 참여할 정도로 헤겔철학에 능통한 철학자이면서 카프의 퇴조 이후 비평의 공백기를 철학적 논변으로 채웠던 비평가로도 기억된다. 그 외에도 국어학의 이희승, 고전문학의 조운재, 한국고미술사의 고유섭, 한문학의 김태준 등의 빛나는 글이 실려 있다.

4) 보성전문, 이화전문의 교지

보성의 교지는 앞에서 말했던 『보충친목회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1922년에 전문학교로 인가받은 후 보성전문(현 고려대)의 교지는 1925년 문예부에서 발간한 『시중(時鍾)』과 교우회(학생회)에서 발간한 『보성(普聲)』이라는 잡지에서 시작된다. 『시중』(1925.1)과 『보성』(1925.5)은 모두 월간으로 기획되었는데, 각각 4호와 3호로 중단되고 만다. 『시중』은 김억·염상섭(소설 [악몽] 연재) 등 현직 문인의 글도 실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논문과 문예면이 적절하게 배열된 점이나 내용면에서 『보성』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시중』과 『보성』의 종간 이후 10여년간 (1926년부터 1935년까지) 보성전문의 교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1936년 11월에 학생회에서 『보전학생』을 창간하고 1938년에 그 2호를 낸 것에 그치고 있다.

1925년 전문학교로 인가되면서 분립(分立)된 이화여전에서는 이화 학생기독교 청년회(이화 YWCA)가 그 산하에 <문학부>를 두고 『이화』지를 간행하게 하였다(1929). 이 외에도 문학부는 주로 학생들의 문학예술활동에 주력했는데 강연회, 토론회, 강사초빙강연, 연구발표 등을 주관하였다. 『이화』지는 1929년 창간 이후 1935년 7호까지 일년에 한 번 발간되었으며, 매호 교내 관련 자료와 풍부한 사진들을 덧붙이고 있어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전체적 구성은 논평(논문), 감상(수필), 일기, 전기, 시조, 신시, 번역, 창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의 3/4 이상을 문예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7호(1935)에는 <현상문예 작품당선발표>란을 만들고 시(13편)와 소설(2편) 당선작을 실고 있어서 문예면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화』지에는 모운숙과 노천명, 전숙희 등의 작품이 실려 있어 당시로서는 빈약했던 여류문인 진출의 교두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모운숙은 학생회 이사이자 농촌부장으로 활동에 적극 참여했는데, 이는 그의 시집에 농촌풍경을 노래한 소박한 서정시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졸업후 처녀시집



교우회지 “보성”

『빛나는 지역』(1933)을 상재하였다. 1934년에 졸업한 노천명은 「사슴」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화』에 여러 편의 시와 소설을 발표하고, 졸업후 『시원』으로 등단 1938년에 첫시집 『산호림』을 출간하였다.

4. 맺음말

같은 친목회지임에도 불구하고 개화기의 국내학회지와 국외유학생학회지가 국권수호운동과 근대의 침병이자 근대문학 이행기의 비밀 창고로서 주목받고 있는데, 한일합방 이후 교내 학생회에서 발간한 교지는 화려한 근대문학의 출범식과 더불어 영원히 기억의 창고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하지만 각 학교의 교지는 변변한 학술논문집 하나 없던 일제시대에 교수들의 연구성과를 담는 유일한 창구였을 뿐 아니라 문단의 벽이 점점 높아지면서 표현의 욕망을 발산할 수 없는 학생들의 유일한 배출구이기도 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동시대의 문제의식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특히 대학 교지는 비단 학내에서만 유통되는 소모품으로서가 아니라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대중에게 개방된 일종의 종합 잡지였던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제로서는 학생들의 사상적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매체이기도 했다.

교지에 숨겨진 문학사는 대부분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물론 등단 문인의 습작품이 실려 있기도 하고, 장르를 넘나드는 의욕을 고스란히 보여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시대 문학 청년들의 문학적 취향과 문단의 영향력을 가늠하게 하는 척도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또한 교지의 논문에 보급되는 사상들은 당시 교실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념의 흔적을 보여주기도 한다. 교지는 문학사의 가십거리로서가 아니라 문학과 사상이 살아 움직이고 소통되는 현장일 것이기 때문이다.



「朝鮮語文學會報」표지